

<세션2 - 글로벌 ESG 동향과 동남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전략>

조범섭 | 포스코퓨처엠 설비자재구매그룹장, 관세사

포스코퓨처엠은 1963년 설립된 포스코그룹 내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2010년부터 이차전지용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인조흑연 원료뿐만 아니라 리튬, 니켈과 같은 원료를 그룹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풀밸류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포항, 광양, 세종에 공장을 두고, 동남권의 이차전지 소재 주력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8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EU실사지침과 자동차, 이차전지 등 고객사의 ESG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부터 자체 공급망 ESG관리 기준 및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당사 거래공급사를 대상으로 ESG실사를 진행해 왔다.

첫해인 2023년은 당사도 처음 하다 보니 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고, 참여공급사도 많지 않았다. 공급사 역시 실사 문항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VOC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인 작년에는 공급사들이 실사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 통폐합하는 등 실사 문항도 최적화했다.

한편 중소공급사들이 대기업 대비 역량이 낮은 안전/환경, 인권/윤리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의 전문부서를 통해 개선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글로벌 ESG 트렌드를 반영하고 당사 공급망 ESG실사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특성에 맞도록 공급사 행동규범과 평가지표를 개선하였고, 서면실사 이후 진행되는 현장실사 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당사도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원단(중소기업 취약분야 지원), 상생결제(임금체불 방지)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거래공급사의 ESG 대응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